

역사·평화를 향한 연대... '서로 엮은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 2024 문화도시광주전...2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의 문화도시광주전은 2012년부터 시작된 해외교류 전시다. 광주·전남 작가들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는 일본 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과 함께 한다. 오는 23일까지 오키나와에 소재한 사키마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서로 엮은 이야기'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전남 작가 8명과 오키나와 작가 6명이 참여해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김화순·노은영·박성환·이상호·이세현·이준석·하성흡·홍성담(이상 광주·전남 작가), 긴조 미노루·타이라 코우시치·요나하 타이치·이시카기 카츠코·마치다 하야토·나카마 노부에(이상 일본 작가)까지 총 14명이다.

▶홍성담작 '마부니의 바람' 중 일부



마지막은 '매체'로, 판화와 회화, 한 국화 등 다양한 매체의 어우러짐이 돋보인다.

홍성담 작가는 작품 '마부니의 바람'에서 1945년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 격전지인 마부니 절벽에서 뛰어내린 민간인 모습을 하얀나비의 날개짓으로 비유했다. 그 날개짓의 애달픈 바람은 1980년 광주에 이르러 혁명의 태풍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준석의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는 화면 가득 해바라기 꽃송이와 광주항쟁의 희생자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을 교차해 그린 것이다. 민중이 곧 역사의 주체이자 미래 사회의 희망

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도 이상호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하성흡의 '1980.5.21. 발포', 김화순의 '눈 오는 도정', 이세현의 '바운더리' 작품, 박성환의 초상화 작품, 노은영의 '곳 자리'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와 오키나와 두 도시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일제 패망 이후에는 미군의 주둔, 다양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등 비슷한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직접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이후 세대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도를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서로 엮인' 광주와 오키나와 작가 14명의 교류로 탄생한 전시인 만큼 두 지역의 연대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사키마미술관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중 하나인 후텐마 비행장에 인접한 곳이다. 비행장이 조성된 땅의 일부는 원래 사키마 미치오 관장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관장은 오랜 협상 끝에 일부를 반환받아 미술관을 설립했으며, 군용지대로 받은 돈으로 '살과 죽음', '고뇌와 구제', '인간과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이준석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 중 일부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미래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작품은 다양한 매체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국에 의한 지배와 국가폭력 경험이 서로 있는 두 도시 광주와 오키나와 예술가들을 3가지 지점에서 서로 엮었다.

먼저 첫 번째 지점은 '장소'다. 약 1천km 떨어진 두 도시 작가들이 공통의 의제를 위해 사키마미술관에 모였다.

두 번째 지점은 '세대'다. 국가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함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전승하고자 한다.



◀하성흡작 '1980.5.21 발포' 중 일부

ACC '영유아기 가족 예술공감 워크숍' 공모...25일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 ACC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공감 워크숍'에 참여할 문화예술기획자 및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공감 워크숍'은 예술을 매개로 육아 스트레스를 겪는 양육자의 마음을 살피고,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기획

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워크숍 공모는 미술·문학·연극·음악·공예·무용 등 장르 구분이 없으며 예술가 협력·캠프·창작·발표·공연·감상 등 다양한 형식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획자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CC재단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총 3개 단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1천만원의 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11-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이경호 감독 영화 '혼자' 대단한 단편영화제 대상 수상

광주영화학교 5회 단편영화 제작 기 초반 강사로 활동한 이경호 감독의 영화 '혼자'가 제16회 대단한 단편영화제에서 KT&G 금관상(단편대상)을 수상했다.

18일(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 따르면 작품 '혼자'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 섹션 초청, 제주흔디독립영화제2024 관객상 수상 등에 이어 대단한 단편영화제 KT&G금관상(단편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사진>

광주문화재단 2023 광주형장애인에 솔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 '혼자'는 가족에게서 독립해 자립을 시도하는 시각장애인 여성 주인공 '선미'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작품 '혼자' 속 주인공 '선미' 역을 맡아 '대단한 배우상'을 수상한 신지미 배우는 5회 광주영화학교 연기특강 강사로 활동했다. 아울러 이세진(프로



듀서, 백종록(제작실장), 허지은(조감독), 오태승(촬영·조명) 등 주요 스태프들이 전부 광주를 기반으로 창제작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과, 광주독립영화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경호 감독은 "무거웠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배우와 늘 믿고 함께 하던 스태프들과 산책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만들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복하게, 즐겁게 영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진 기자



'소리·공간·기술'...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 성료

주제 강연·토의·퍼포먼스 등 다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전시에 대한 학습의 장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새로운 울림: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소리, 공간, 기술의 교차점에서 이뤄지는 다채로운 학문적 논의가 펼쳐진 자리였다. 참가 접수에만 국내외 총 230여 명이 신청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양자 물리학자, 지리학자, 미디어 이론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참여해 주제 강연, 토의, 작가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주제의 심층적인 탐구는 물론 청중들이 연사들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며 주제를 이해하는 학술행사였다.

더불어 기술을 필두로 양자 물리학과 예술, 환경, 미디어, 소리 연구, 인류학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각 분야 학자와 이론가, 예술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큐레이터들이 모여 네트워크와 협업의 장을 이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6명이 심포지엄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나 패널로 참여해 주제 토의를 이어갔다.

한편 (재)광주비엔날레는 앞으로도 동시대 예술과 문화의 경계를 확장하는 학제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 영상은 추후 구겐하임 미술관 홈페이지와 광주비엔날레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